

국내외 거시경제 동향

2020.8

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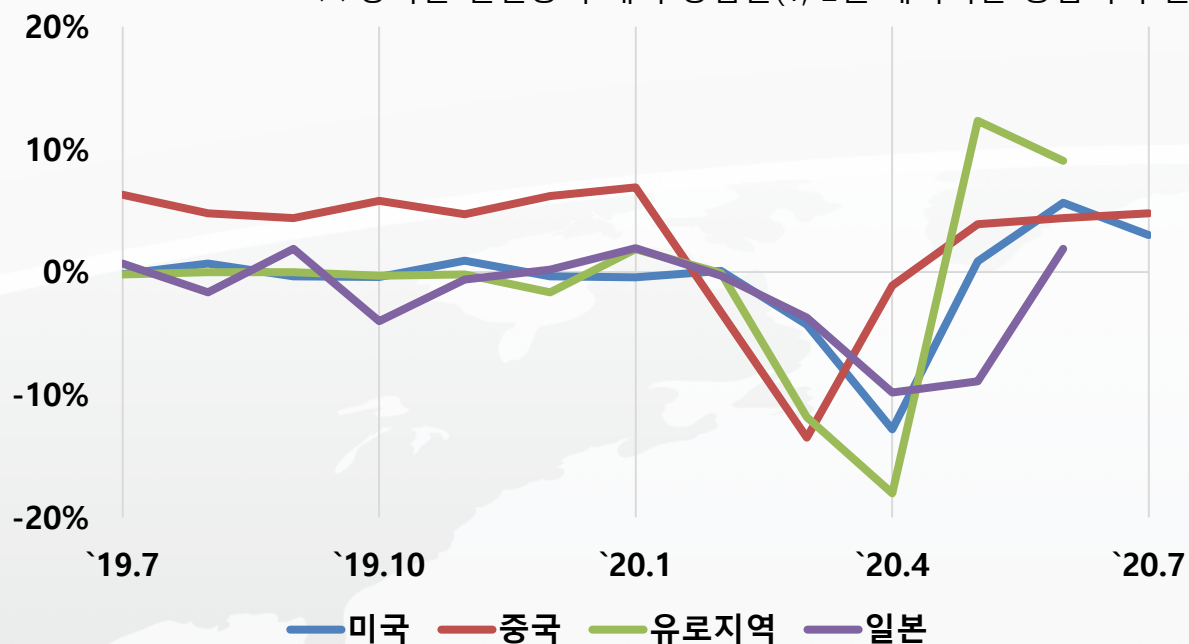
세계 경제 동향

■ 주요국 경제동향 :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, 경기 부진 완화

- **(미 국) 점진적 경제 재개 및 정책 효과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 유지**
- 7월 산업생산(전월 대비, +3.0%) 및 소매판매(+1.2%) 모두 3개월 연속 증가하는 한편,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회복 모멘텀은 다소 약화
- **(중 국) 생산 증가세 지속 및 인프라 투자 증가 등으로 양호한 회복세 지속**
- 7월 산업생산(전년동월 대비, +4.8%)은 4개월 연속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, 7월 수출(전년동월 대비, +7.15%) 또한 큰 폭 증가
- **(유로존) 봉쇄조치 완화 등으로 생산·소비 및 심리지표 회복세**
- 6월 산업생산(전월 대비, +9.1%)은 큰 폭 증가세를 유지하는 한편, 7월 심리지표(제조업, 서비스업 PMI 51.8p, 55.1p) 모두 기준치(50) 상회
- **(일 본) 소비 약진에도 불구하고, 생산·수출 동반 부진**
- 6월 소매판매(전월 대비, +13.1%)는 상당 폭 증가하였음에도, 6월 산업생산(전월 대비, +1.9%), 7월 수출(전년동월 대비, △19.2%)은 여전히 부진

전산업생산지수(전월 대비 증감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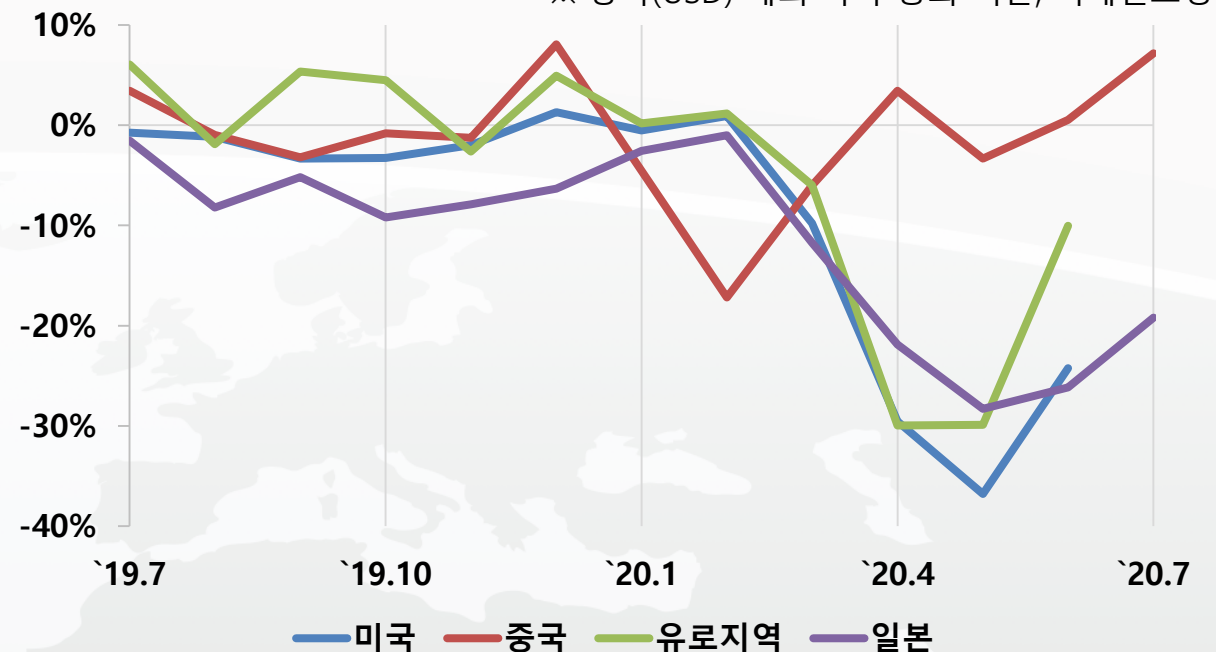
※ 중국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(1, 2월 데이터는 통합되어 발표)



자료 : Bloomberg

수출 추이(전년동월 대비 증감률)

※ 중국(USD) 제외 각국 통화 기준, 비계절조정



자료 : Bloomberg

국내 경제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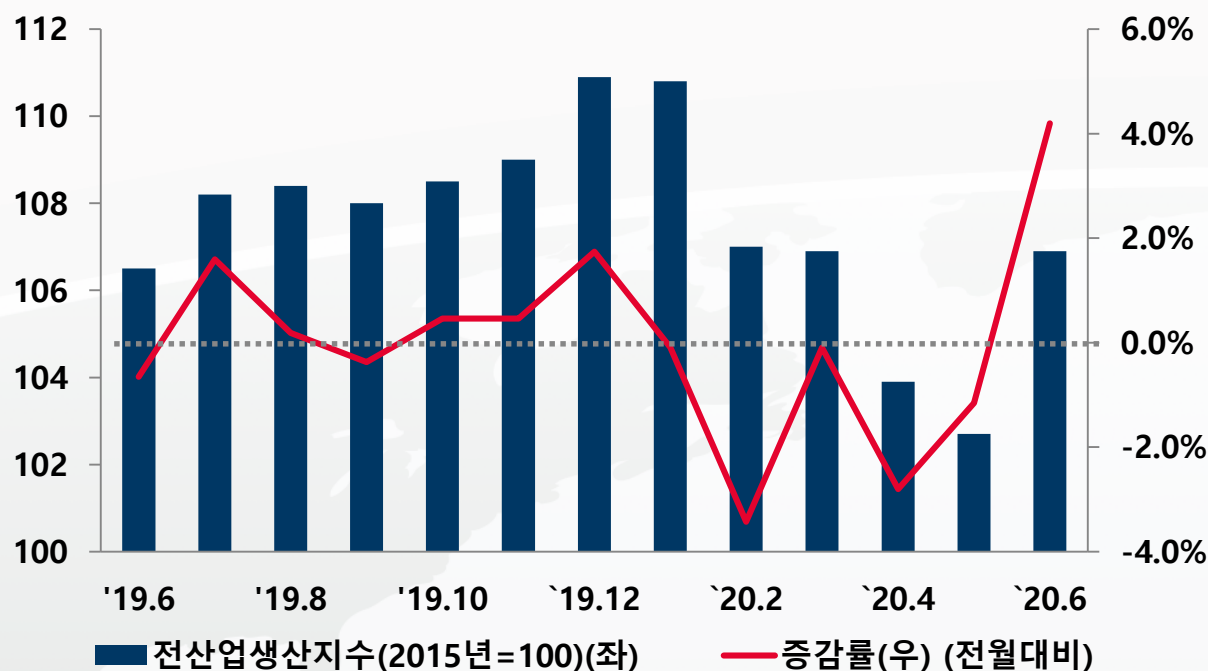
■ 산업 활동 : 생산·소비·투자 모두 6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 (6월 기준)

- (생산) 6월 전산업생산(전월 대비, +4.2%)은 광공업(+7.2%) 및 서비스업(+2.2%) 생산 증가로 6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
 - 광공업 생산은 기저효과,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출 부진 완화 등으로 자동차(+22.9%), 반도체(+3.8%) 등이 증가하며 큰 폭 증가
 - 서비스업 생산은 학교 개학, 주식거래 증가 등 영향으로 교육(+5.4%), 금융(+2.8%) 등이 개선되며 3개월 연속 증가
- (경기) 6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(96.7p)·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(99.4p) 모두 5개월 만에 반등 (기준치 100)

■ 수출 동향 : 코로나19 이후 수출 감소율 한 자릿수 첫 진입

- 7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7.0% 감소한 428.3억 달러로, 수출 규모·일평균 수출액·무역수지 등 주요 지표 개선
 - 대미국 수출(전년동월 대비, +7.7%)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하는 한편, 15대 품목 중 반도체·선박 등 6개 품목이 증가*
- * 주요 품목별 수출액 증감률(전년동월 대비, %) : (반도체)5.6 (선박)18.0 (컴퓨터)77.1 (바이오헬스)47.0 (무선통신)4.5 (가전)6.2

전산업생산지수(계절 조정)



자료 : 통계청

수출 추이

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(통관기준)

국내외 금융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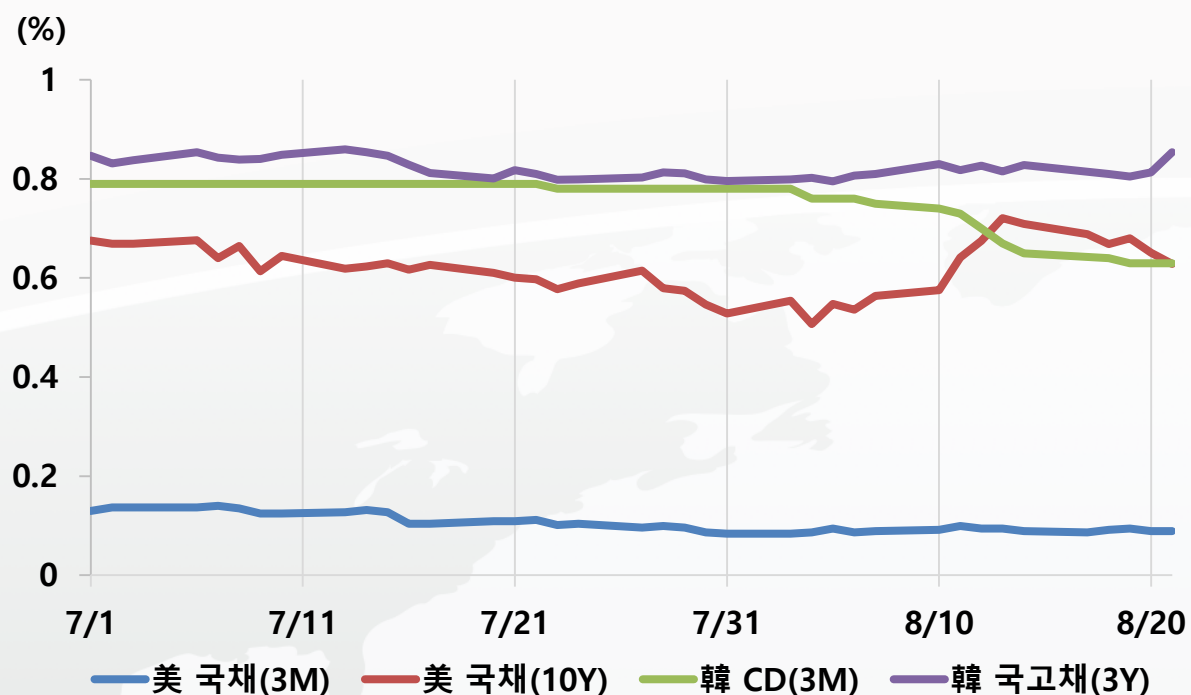
■ 금리 동향 : 국채발행 증가 등으로 장기물 금리 반등

- (미국) 디플레이 우려 등으로 10년물 국채 금리는 사상 최저치 기록, 이후 물가·고용지표 호조 및 수급 우려 등으로 반등
- 미 국채 10년물 금리(%): (7.21) 0.600 → (7.31) 0.528 → (8.4) 0.507 → (8.13) 0.721 → (8.21) 0.628
- (한국) 국고채 3년물 금리는 무역갈등 우려·주요국 지표 개선 등 상충된 요인으로 박스권 등락, 이후 4차 추경 논의(8.21) 등으로 소폭 반등

■ 환율 동향 : 확장적 통화·재정정책, 美 경기 부진 지속 등으로 미 달러화 약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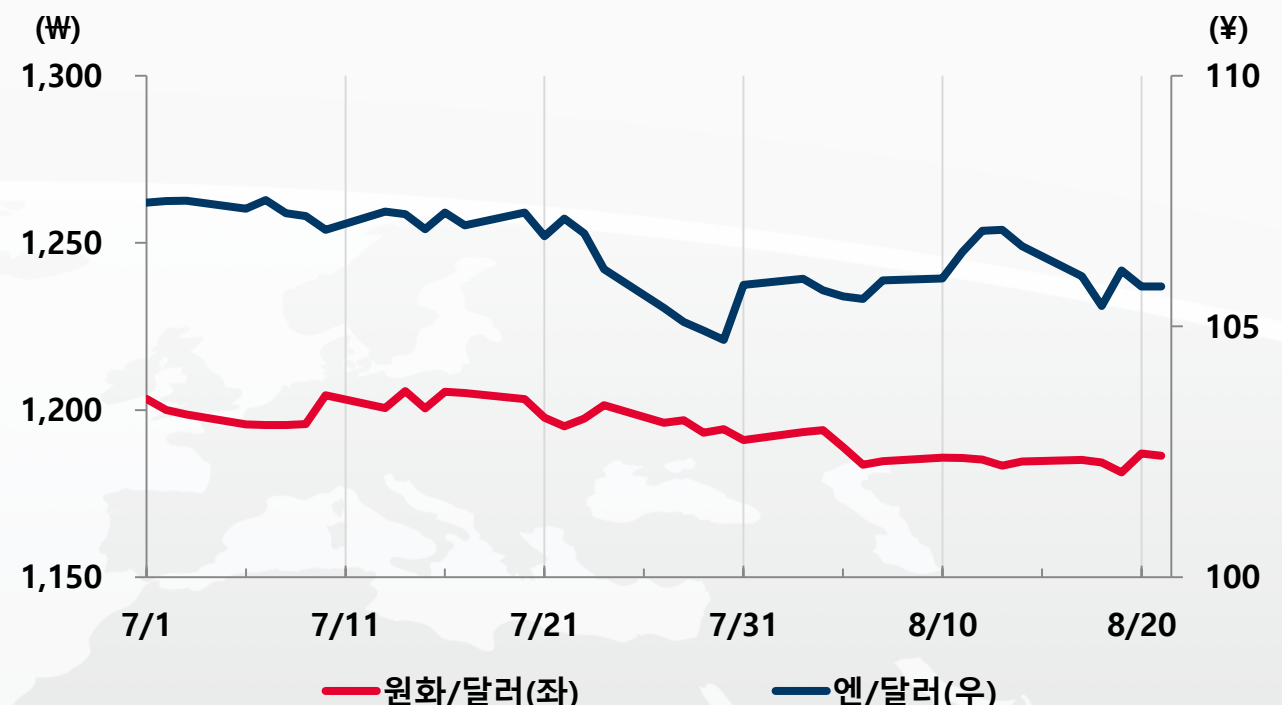
- (원/달러 환율) 미 달러화 약세 속, 수출부진·미중 갈등 격화 등이 원화 강세 제한
- (엔/달러 환율) 美 코로나19 악화·경기부양책에 따른 달러 약세 기대감 등으로 7월 말 환율 급락, 이후 등락 지속

韓·美 채권 금리 추이



자료 : Bloomberg, 금융투자협회

달러 환율(對원화, 對엔화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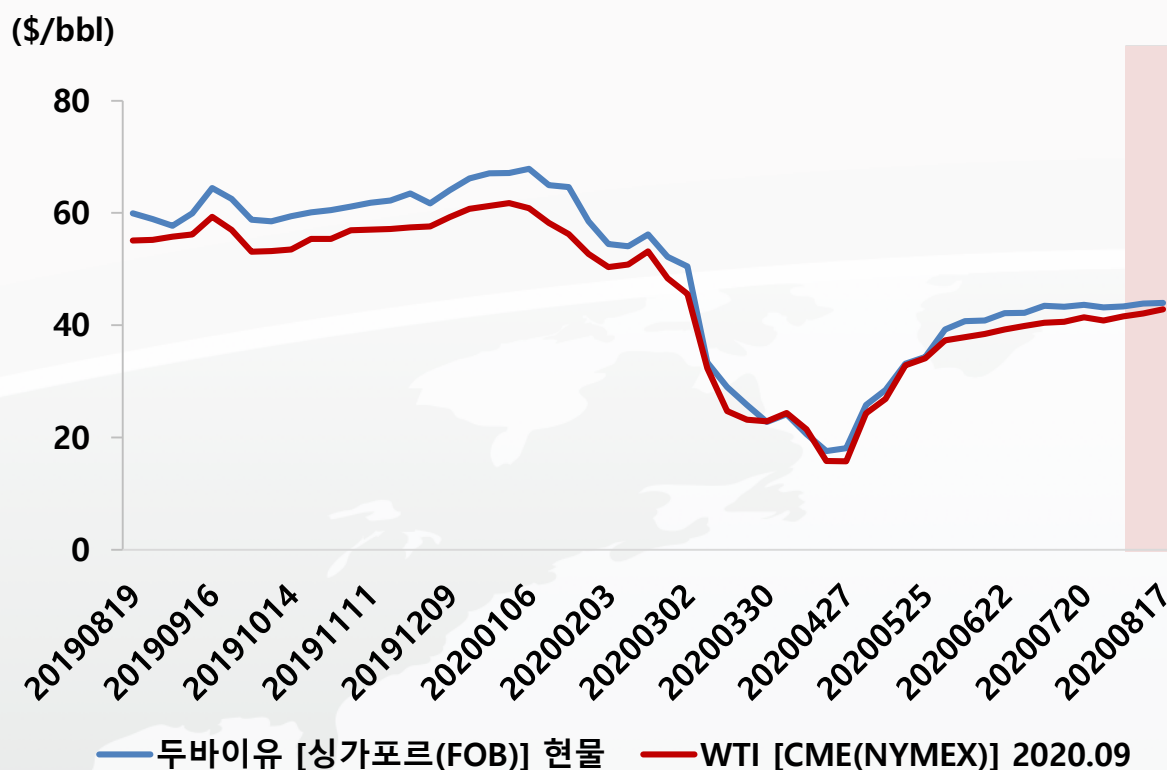
자료 : Bloomberg

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

■ 8월 국제유가 배럴당 40달러 초중반대에서 보합 또는 소폭 상승, 천연가스 가격은 큰 폭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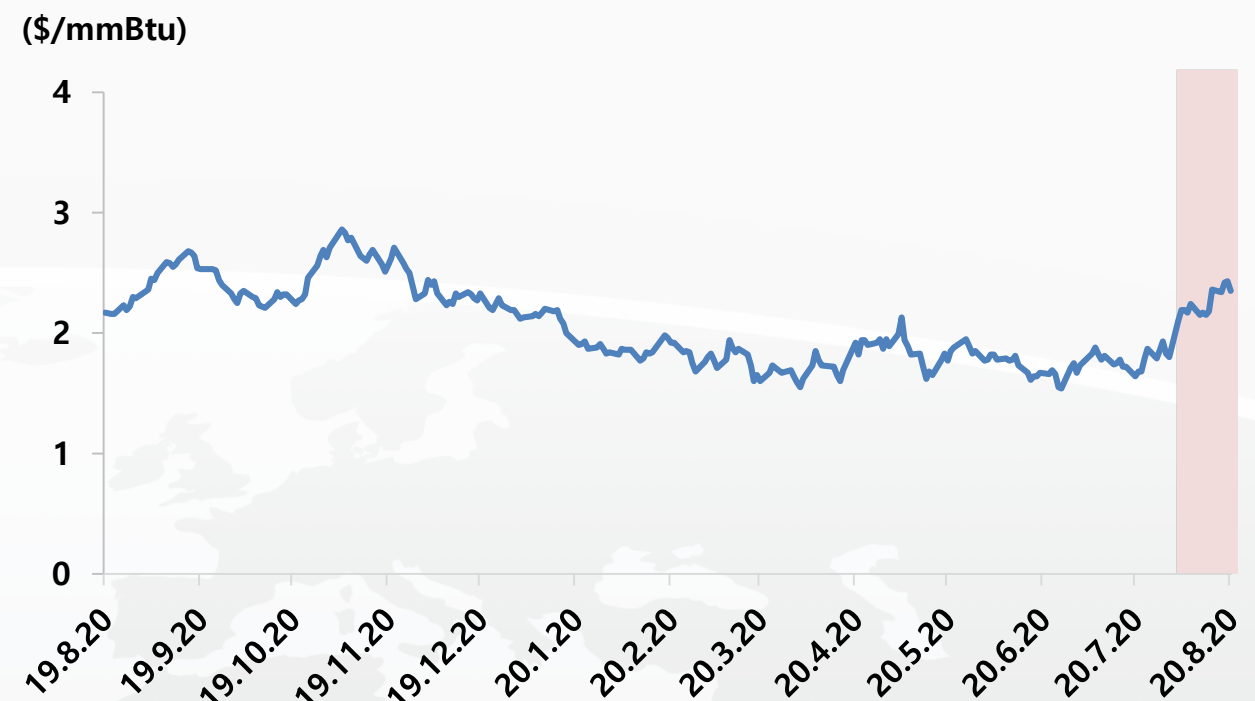
- (유가) 미중 무역 갈등,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 하락요인과 OPEC+감산, 미국 재고 감소 등 상승요인이 혼재하며 두바이유는 보합세, WTI유는 소폭 상승
 - 두바이유는 IEA 8월 보고서의 2020년 원유수요 하향 전망 등으로 보합세를 보인 반면, WTI 가격은 미국의 석유 시추 리스 수 3주 연속 감소세에 따른 생산량·재고감소 우려 등으로 소폭 상승
- (천연가스 가격) 미국 수출호조 기대감, 냉방용 발전 수요 기대감 등으로 mmBtu당 1달러 중후반대에서 2달러 초중반대로 급등
 - 미국 LNG 수출 증가세, 9월 무더위 지속 가능성 등으로 수요 증가 기대감이 형성되어 가격 상승 견인

국제유가 추이



자료 : Koreapds(유가는 주간 가격, 천연가스 가격은 NYMEX 익월물 일일가격)

미국 천연가스 가격 추이



7월 수주는 부진한 수준이나 다소 개선

수주는 여전히 부진한 수준이나 고부가 선종 수주로 다소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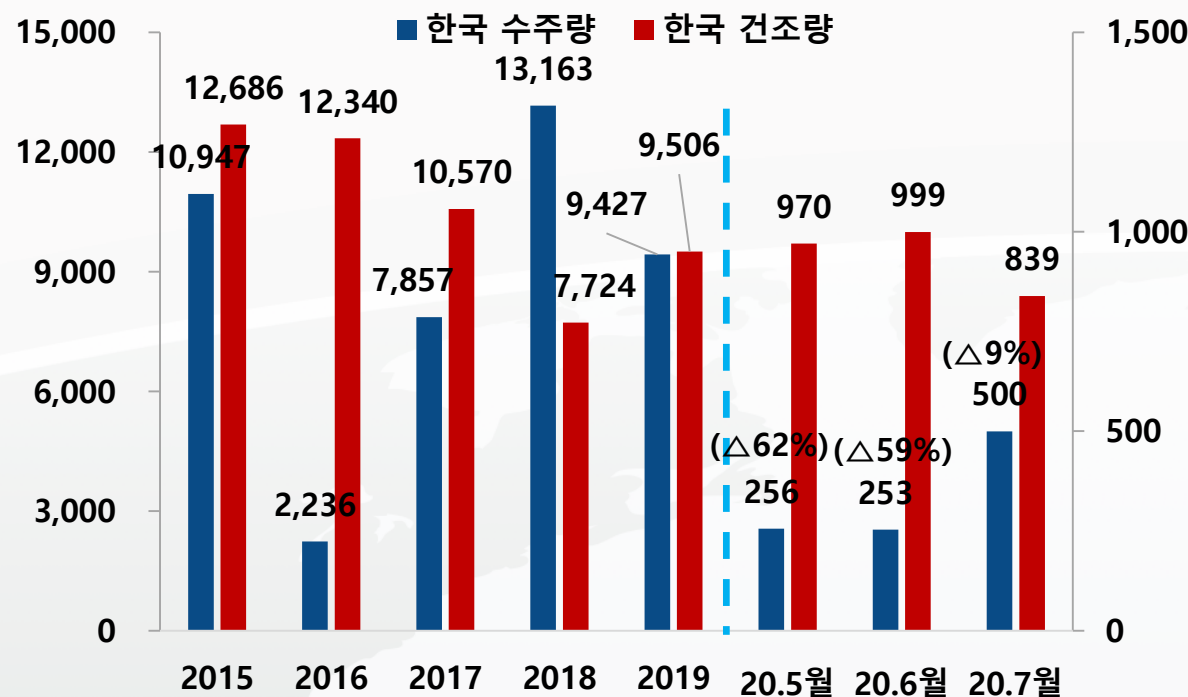
- 7월 누적 수주량 168만CGT(전년동기 대비 $\Delta 61.2\%$), 7월은 50만CGT(전년동월 대비 $\Delta 9.2\%$)
- 7월 누적 수주액 40.9억 달러(전년동기 대비 $\Delta 61.1\%$), 7월은 10.5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$\Delta 11.5\%$)
- 7월에는 금년들어 첫 LNG선을 수주하는 등 고부가 선박 수주로 코로나사태 이후 처음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수주를 기록
- 한국 신조선 점유율은 7월 누적 25.4%로 중국(56.6%)에 이어 2번째이며 여전히 부진하나 점유율은 다소 회복 (CGT 기준)

선박 수출 역시 전년동월 대비 감소

- 7월 누적 수출액은 115.1억 달러(전년동기 대비 $\Delta 8.3\%$), 7월은 17.9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1.8%)

한국 조선업 수주 및 건조량 추이 (천CGT)

※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수주량 증감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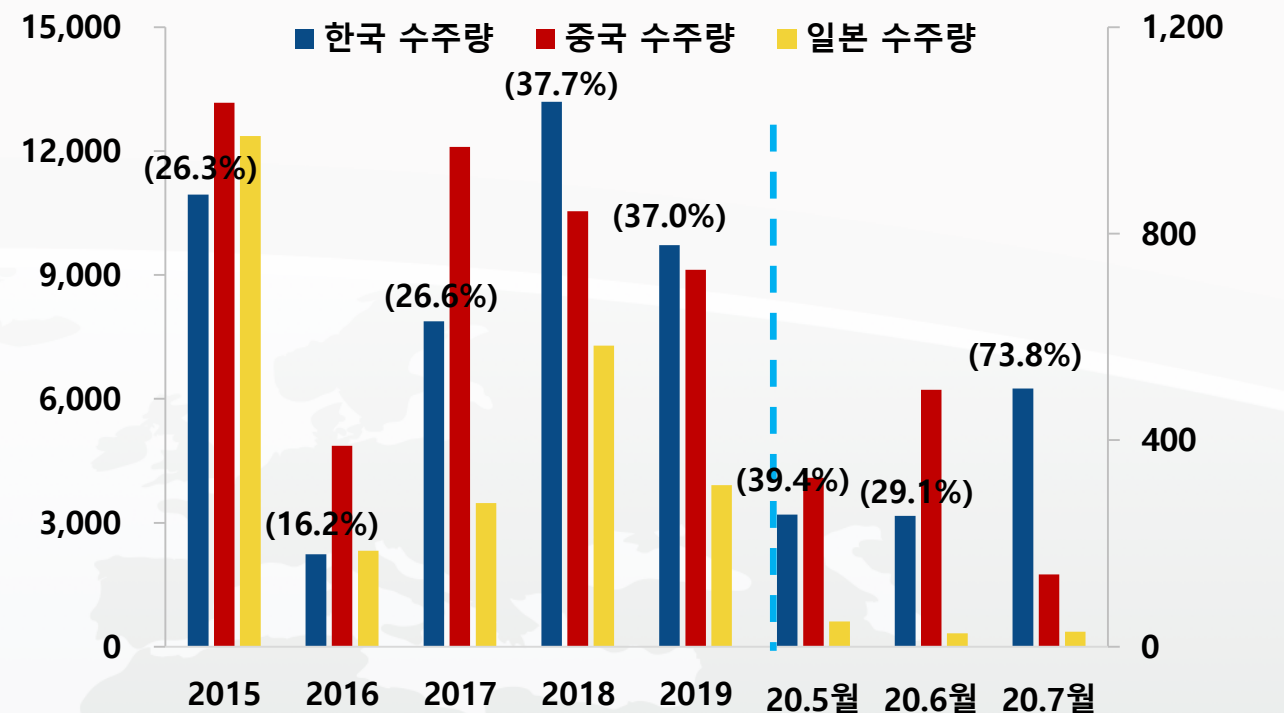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Clarkson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한·중·일 수주량 및 점유율 추이 (천CGT)

(괄호 안은 당월 한국 수주량 점유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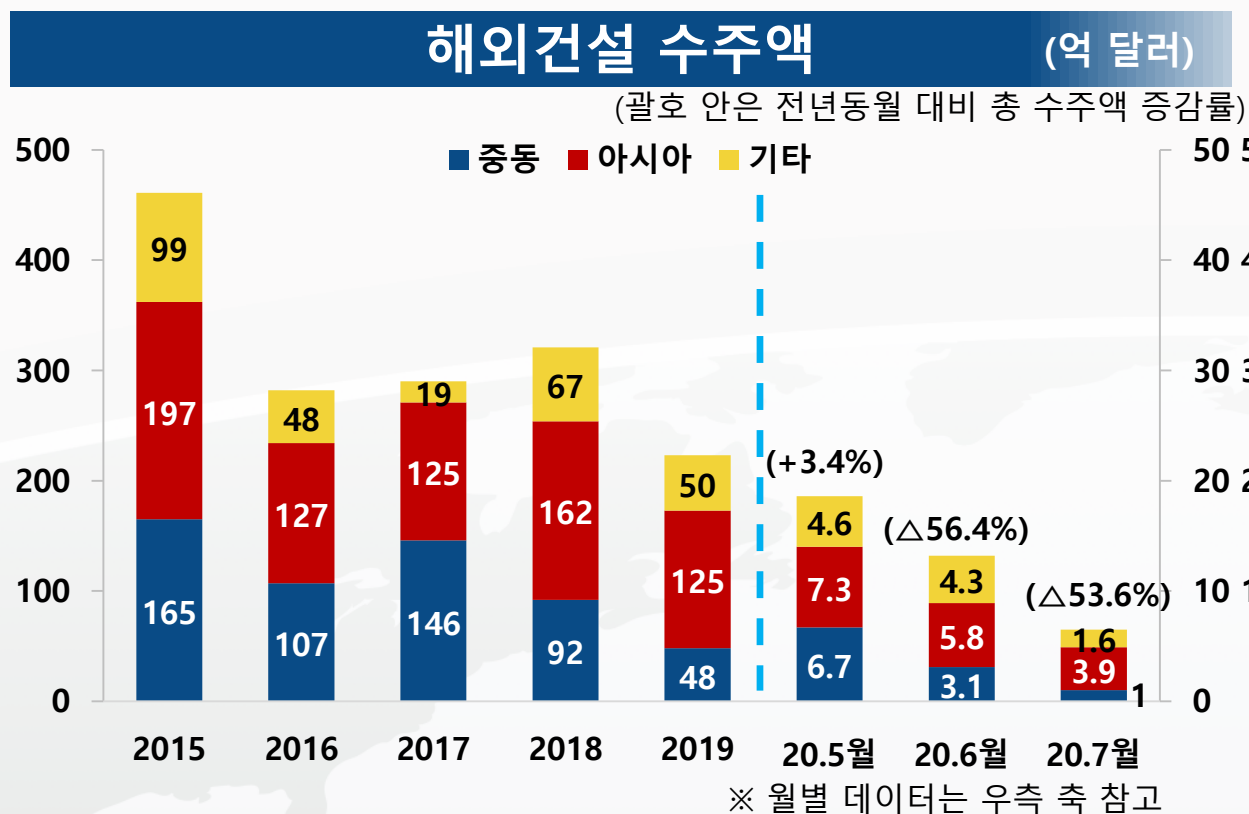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Clarks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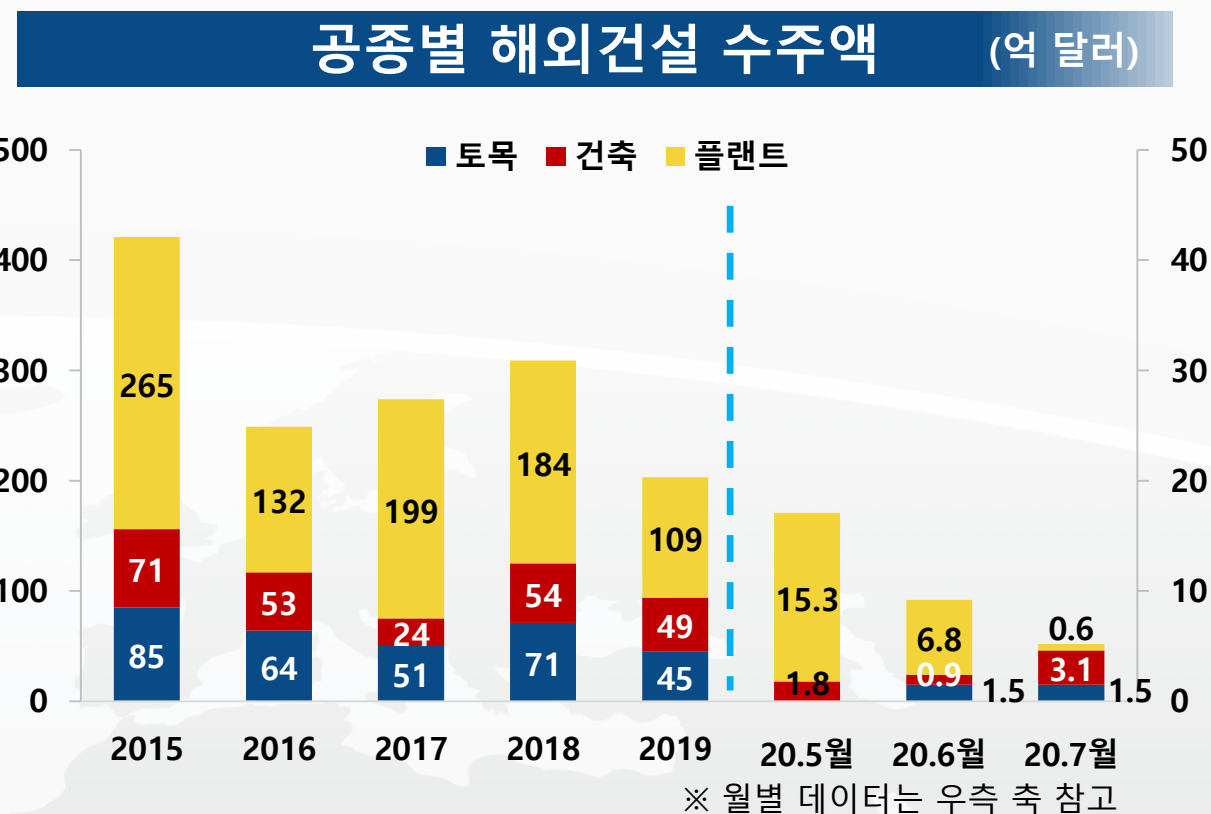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■ 7월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 대비 53.6% 감소한 6.5억 달러

- 중동 수주액은 전년 대비 83.1% 감소한 1.0억 달러, 아시아 수주액은 전년 대비 52.5% 감소한 수준인 3.9억 달러
-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건설 수주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으며, 7월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하반기 수주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
- 플랜트 수주액은 0.6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86.4% 감소, 토목은 1.5억 달러, 건축은 3.19억 달러 기록
- 연초 호조세를 기록했던 중동수주가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상황으로, 코로나19 상황의 극적인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해외건설 수주 전망치의 하향 조정은 불가피



자료 : 해외건설협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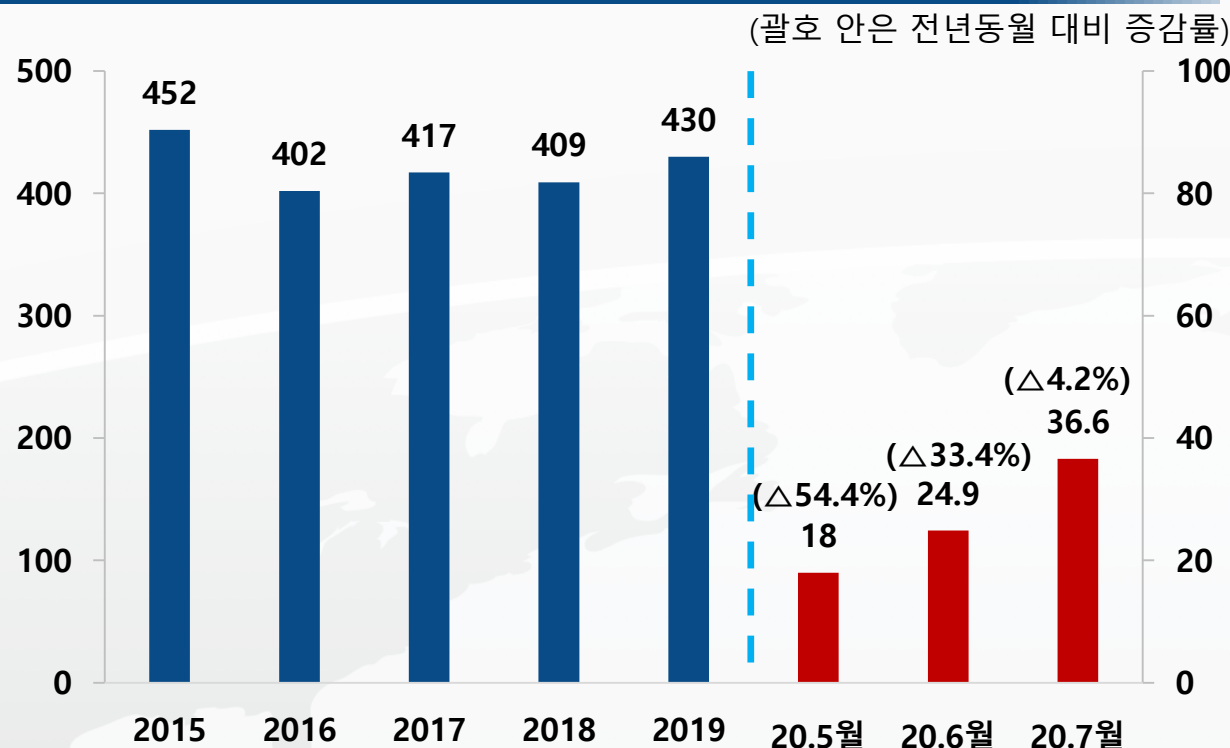
자료 : 해외건설협회

자동차·자동차 부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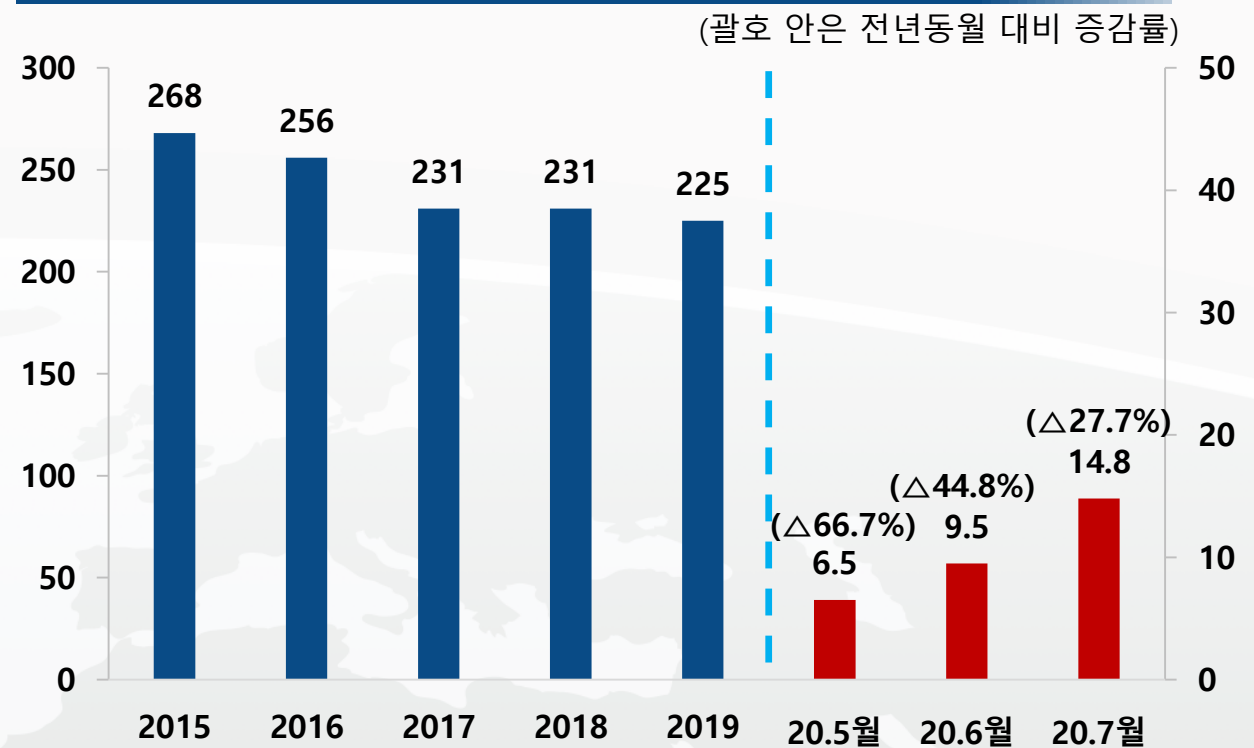
■ 7월 자동차 및 부품수출액은 각각 36.6억 달러, 14.8억 달러

- 자동차 및 부품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각각 4.2%, 27.7% 감소하는 등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되는 상황
 - 미국시장 판매증가에도 불구하고 3~5월 판매 급감에 따른 많은 재고로 인해 수출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
 - 유럽의 완성차 재고부담에 따른 생산량 조정 및 러시아·브라질 등 신흥국 판매 부진으로 인해 자동차 부품 수출은 감소
- 글로벌 코로나 19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있어, 자동차 및 부품 수출은 3분기에도 반등하기 어려울 전망
 - SUV 및 전기자동차 등 새로운 차종은 선전하고 있으나,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상황은 주력 차종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

자동차 수출액 (억 달러)



자동차 부품 수출액 (억 달러)



반도체·디스플레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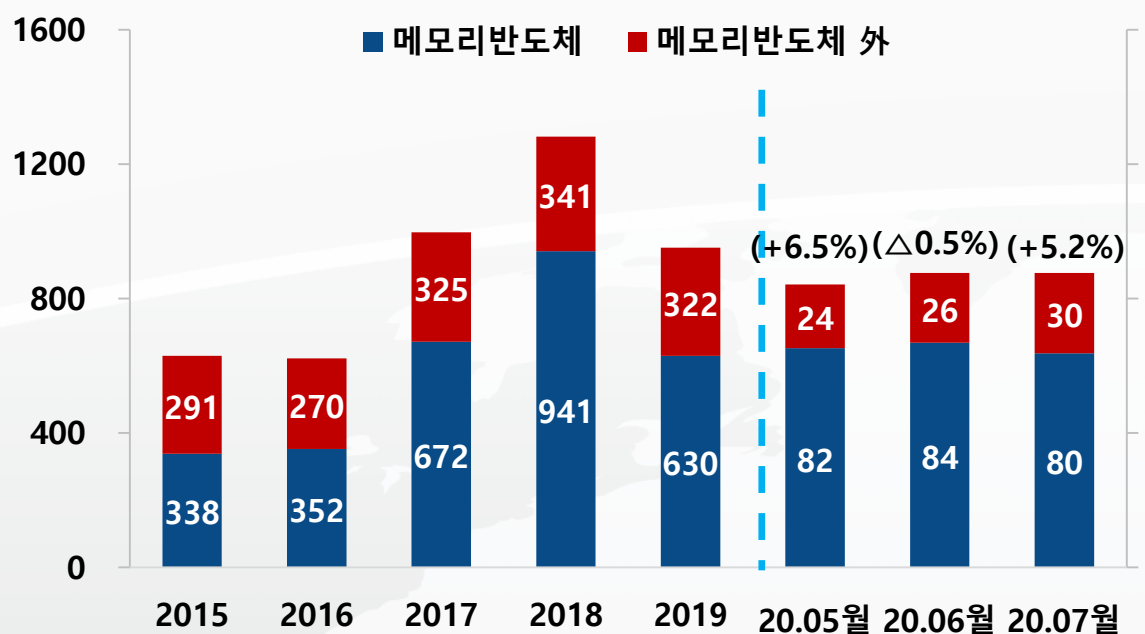
■ 7월,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5.2% 증가, 디스플레이 수출은 21.1% 감소

-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5.2% 증가, 전월 대비 4.8% 감소한 79.6억 달러
 - D램 고정거래가격은 소폭 하락했으나 견조한 서버와 PC 수요 등으로 인해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5.0% 증가,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8.1% 증가 * D램 고정거래가격(달러) : ('20.1)2.84→(2)2.88→(3)2.94→(4)3.29→(5~6)3.31→(7)3.13 (D램익스체인지)
-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1.1% 감소, 전월 대비 3.3% 증가한 15.5억 달러
 - 중국의 생산능력 확대, 한국기업의 LCD 구조조정 등으로 LCD(△23.4%) 수출은 하락세 지속, 하락폭은 소폭 축소 * LCD수출증감률(전년동월 대비 %) : ('20.4)△37.4→(5)△36.4 →(6)△26.2 →(7)△23.4
 - OLED 수출은 코로나19 장기화, 소득감소 등으로 LCD 대비 고가인 OLED 수요가 감소하면서 전년동월 대비 28.9% 감소 * OLED 수출증감률(전년동월 대비 %) : ('20.1)0.4 →(2)2.6 →(3)12.6 →(4)△25.2→(5)△4.1→(6)13.4→(7)△28.9

반도체 수출액

(억 달러)

(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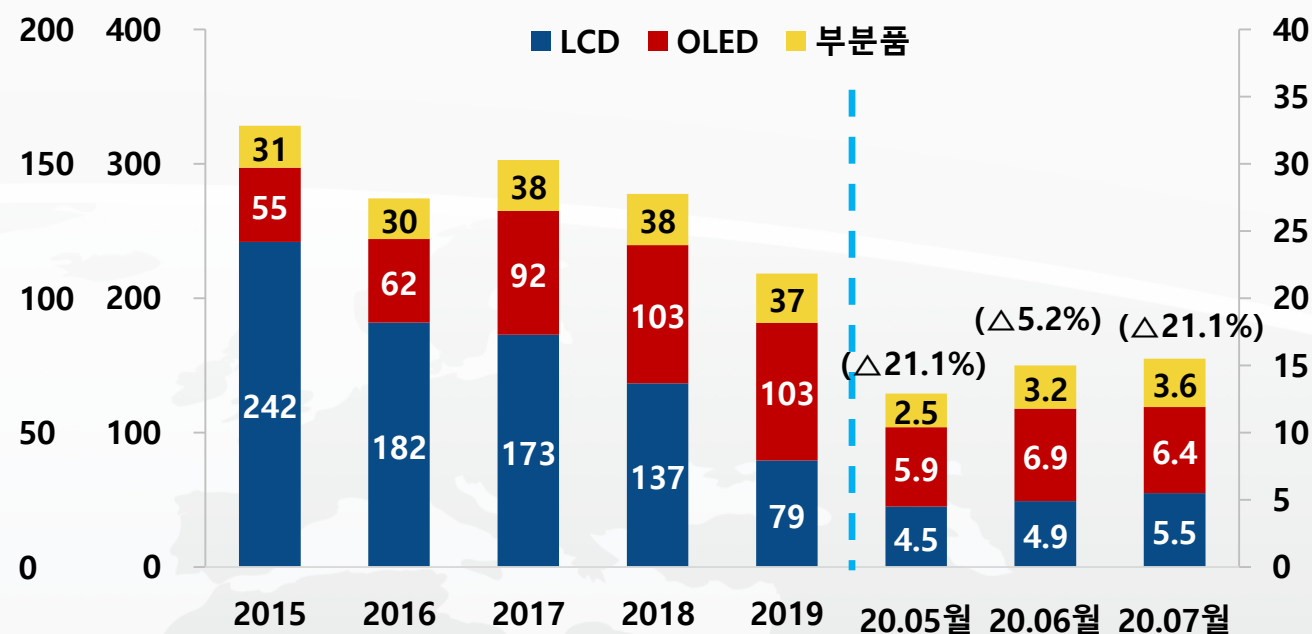
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디스플레이 수출액

(억 달러)

(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)

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